

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 차질

나주열병합발전소 이어 광주 연료화시설도 스톱 주민 반발에 지자체-기관 소송·갈등 지속

빛가람혁신도시를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로 조성하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를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로 조성할 핵심 시설은 정상 운영은 커녕, 모두 멈춰섰다. 주민 반발과 지자체·기관 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소송전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 문제가 혁신도시를 넘어 광주로까지 옮겨붙는 모양새다.

◇광주도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중단=27일 광주시와 ㈜정정빛고을에 따르면 광주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이 지난 1월 30일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광주 연료화시설이 생산하는 ‘비성형’ 고형연료를 공급받는 혁신도시 내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면서다.

광주 연료화시설은 지난해 12월부터 광주 곳곳에서 반입된 생활쓰레기(하루 530t)를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로 만들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공급기로 했었다.

하지만 열병합발전소에 쓰일 고형연료를 전남지역 외 광주에서 반입하는 데 따른 나주시와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열병합발전소의 정상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시는 애초 협약과 다른 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안을 요구한 상태다.

이 때문에 지역난방공사가 광주 연료화시설에서 하루 320t 가량의 고형연료를 생산, 열병합발전소로 공급기로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연료를 만들어 보낼 곳이 없다보니 공장 가동을 멈췄다는 게 광주시와 연료화시설 운영주체인 정정빛

고을측 설명이다. 나주 혁신도시 문제가 광주 연료화시설 가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열병합발전소, 광역자원화시설도 멈춰서=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시설로 열병합발전소와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등을 꼽힌다.

혁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는 고형연료를 활용, 전기와 열을 만들어 혁신도시에 공급하는 시설로,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자원화하고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취지로 2700억원을 들여 건립했지만 정상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8월 시운전을 시작, 12월 준공해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연료 반입 문제와 LNG 보일러만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나주 지역민 민

원 등이 제기되면서 여태껏 멈춰선 상태다.

나주시의 경우 광주가 아닌, 나주·화순, 목포·신안, 순천·구례 지역에서만 고형연료를 들여와 발전소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발전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195억원짜리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도 비슷하다. 지난 2014년 생활쓰레기 선별과 파쇄, 건조, 압축 과정을 거쳐 펠레트 형태의 고형화 물질을 만들기 위한 시설을 지어놓고도 성능 미달, 관리 능력 부재, 열병합발전소 운영 차질 등이 맞물리면서 가동을 멈췄다.

◇소송전도 격화=광주시와 정정빛고을측은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이 멈춰선 데 따른 손해가 하루 4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지난 1월 한달간 발생한 손해만 9억원에 달한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연료화시설의 경우 고형연료를 생산,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해 받은 비용과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더해 947억원에 이르는 연료화시설

건립비를 15년동안 갚아나가야 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광주시 등 연료화시설 출자자들은 이같은 점을 감안,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한국 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기로 결정했다. 난방공사도 나주시의 사업 승인 거부로 공장 중단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 나주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앞서 난방공사측은 지난해 12월 29일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열병합발전소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난방공사측이 제기한 ‘고형연료 사용신고수리 등 의무 이행심판’ 청구는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수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나주시도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열병합 발전소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환경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질의를 한 바 있다. 광주·나주·난방공사가 각각 소송전을 불사하며 얽혀있는 형국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정부가 혁신도시를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주요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aT, ‘식품기업 상품가격결정 과정’ 교육생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김장래)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오는 3월 22~23일 실시하는 ‘식품기업 상품가격결정 및 운영실전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기업 수익과 판촉 전략의 중요요소인 상품의 가격을 가장 적정한 선에서 결정하는 것을 돕는데 목표를 두고 지난해 신설해 약 160% 모집경쟁률을 보인 교육과정이다.

강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감 있는 내용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해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가와 함께 높은 강의만족도(4.71/5점)를 나타냈다.

교육내용은 ▲제품 단위당 가격구조 ▲제조원가를 포함한 원가의 기본적 이해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격결정 방법(비용중심·고객중심 등) ▲판매채널에 따른 입점 가격 실패 등이다.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자회사 상품의 최적 가격 결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교육대상은 식품제조, 가공, 유통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서비스 기획 및 개발, 마케팅 관련 관리자 및 실무담당자 등이다.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선착순 모집 마감에 교육비는 무료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국토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출범

국토교통부는 27일 혁신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추진단은 기존의 ‘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단’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다.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하 조직도 개편된다.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 직할로 정책총괄과, 계획과, 산업과가 생기고 지원국장 아래 지원정책과, 상생발전과, 대외협력과가 만들어지는 등 총 6개 과로 구성된다.

직원 정원은 34명이다.

정책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총괄하고 혁신도시 정부 인프라 개선사업을 담당한다.

산업과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상생발전과는 지역생활권 내 상생발전 및 협력 등 주요 신규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직 재정비에 이어 올해 6월까지의 시·도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의 혁신도시별 발전 테마를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개편된 조직을 통해 혁신도시 시즌2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화기술·한류 콘텐츠 우수성 알린 평창올림픽

융복합콘텐츠 체험관 운영

지난 25일 막을 내린 평창 올림픽은 세계인들에게 한류 콘텐츠를 선보인 국제적인 축제였다.

특히 올림픽플라자 내 융복합콘텐츠 체험관은 관람객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해 우리 문화기술(CT)과 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영준)은 올림픽 기간에 융복합콘텐츠 체험관 ‘라이브 파빌리온(LIVE PAVILION)’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라이브사이트팀과 추진한 체험관은 한류스타와 올림픽 마스코트를 활용한 ‘라이브 홀로 콘서트’, ‘플레이 존’, ‘VR 아트렉션 존’ 등으로 구성됐다. 일평균 8000명의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 우리 문화기술의 탁월함을 대내외에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라이브 홀로 콘서트’는 홀로그

램 기술을 통해 싸이, 지드래곤, 씨엔블루, 에이오에이 등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생동감 있게 재현했다. 특히 텔레프레즌스 기술(AR기반 홀로 그래픽 통화솔루션)을 매개로 관람객이 지드래곤의 연인이 돼 무대에 함께 등장하는 이벤트가 인성적이었다.

‘플레이 존’에서는 증강현실 포토부스, 증강현실 데이트 벤치, 초대형 디지털 사진 방명록 등 AR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였다. 동계스포츠 5종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VR 아트렉션 존’, 5m 이상의 초대형 만화경으로 관람객들의 얼굴을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캘레이도스코프 미디어 아트도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라이브 파빌리온은 설치물을 장애인 관람객에 맞춰 제조정한 후 평창 패럴림픽 기간인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문의 061-900-651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력거래소 모바일 앱 전면 개편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27일 전력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전면 개편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사업자가 참여하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현물시장 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존보다 쉽고 편하게 전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REC현물시장은 지난해 3월부터 주2회(화·목) 주식거래처럼 참여자가 실시간 매물등록과 주문이 가능해진 양방향 거래방식으로 개설했다. 도입 이후 지난 1월말까지 1일 평균거래량은 약 3만 REC, 평균거래금액은 약 37억여원에 달한다.

이처럼 REC 현물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공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요 관심 사항인 거래량, 거래금액, 거래속보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토록 개설했다. 기존 실시간 전력수급 현황 및 SMP가격 등의 조회 등도 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보다 쉽고 빠르게 전력수급 및 REC를 포함한 전력시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TÉLÉSIS

Paris

텔레시스는 지적인 능력으로 자기목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파리 패션 위크 데뷔와 함께 패션문화거리 마레지역에서 활동했던 텔레시스는 25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정된 트렌드에서 벗어나 로맨틱 감성을 바탕으로 과장되지 않는 디테일 속에서 Chic & Unique한 자기 표현을 연출합니다.

MUSTARD
MATCHING 15.000

SPRUCO
MATCHING 15.000

DRY SAGE
MATCHING 15.000

CHAKI BERGE
MATCHING 15.000

ELEPHANT GREY
MATCHING 15.000

TELÉSIS

TELÉSIS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파리 ESMOD 의상학교 Styliste 전공
- 파리 FLEURIMON 메이크업 전공
- CLAUDE MONTANA 디자이너
- LUC SAINT ALBAN 프리랜서
- BALANCIAGA 프리랜서
- PRET A PORTER PARIS Atmosphere(2002~) 전시 다수참여
- 2002~TELESIS 총괄디렉터 & 브랜드 운영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